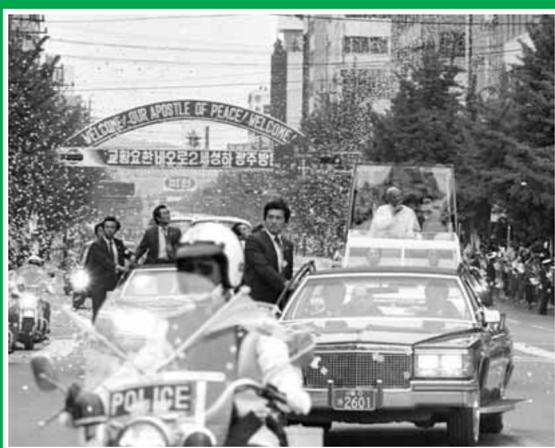


격동의 현대사 현장 지킨 불굴의 정신

사진으로 보는 광주일보 63년

광주일보가 63년 역사와 함께 28일 2만번째 신문을 발행했다. 광주일보의 '지령 2만호' 발행은 광주·전남의 역사와 함께했다. 본보 사진기자들이 '지령 2만호'를 발행하기까지 역사의 현장에서 뜨거운 열정을 쏟아내 만들어낸 사진들을 모았다.

지난 63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비롯해 지역의 풍물과 민심, 시·도민들의 애환 등 호남의 역사와 지역민의 일상을 생생한 현장사진으로 되돌아 본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교황 요한바오로 2세 광주 방문 1984년 5월3일 광주를 방문한 교황 요한바오로 2세가 금남로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도중 시민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진도 해상 세월호 침몰 2014년 4월16일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해 탑승 인원 476명 중 수색여행 을 가던 단원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한 29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금남로 이한열 열사 추모인파 1987년 6월9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전투경찰이 쏜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한달간 사경을 헤매다 숨진 故 이한열(광주 진흥고 출신) 열사의 운구 행렬이 7월9일 광주 금남로에 도착했다. 수만명의 추모 인파가 금남로를 가득 메웠으며, 이씨의 죽음은 6월 항쟁과 6·29 선언의 도화선이 됐다.



김대중 광주 공설운동장 유세 1970년 11월 광주 공설운동장(전 무등경기장, 현 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신민당 김대중 대통령 후보 유세를 보기 위해 수십만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청중을 향해 김 후보가 양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물에 잠긴 영산포 1989년 7월 26일 홍수로 인해 나주시 영산포의 삼영제가 붕괴되면서 영산포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씨프린스호 좌초 1995년 7월23일 여천군 남면 소리도 앞바다에서 태풍 '페이'로 인해 유조선 '씨프린스호'가 좌초, 기름 5000t이 유출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었다.



5·18 도청 사수 시민군 1980년 5월21일 무장한 시민군들이 전남도청으로 압박해오자 계엄군은 이날 오후 5시30분 총퇴각했다. 다음날 22일 계엄군 퇴각 후 도청 건물을 장악한 시민군들이 창문 밖에서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을 바라보고 있다.